



제도경제 브리프

Institution and Economy Brief
Current Issues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KIEA (사) 한국제도·경제학회

2021년 4월 29일, 제5호

Institution matters!

애덤 스미스 헤안의 중심에 있는 논리와 수사¹⁾

이성규 <<제도경제 브리프> 편집책임자, 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지난 4월 22일은 1751년에 애덤 스미스가 글래스고(Glasgow) 대학에서 28세의 나이로 ‘논리학 및 수사학 교수’(Professor of Logic and Rhetoric)로 임명된 날이다. 애덤 스미스는 당시 28살에 불과했지만 이미 ‘천재적이고 재능있는 학자’로 세간에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었다. 애덤 스미스는 에든버러(Edinburgh)에서 일련의 공개적인 철학 강연들을 개최하여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이로 인해 당시 스코틀랜드의 수도

인 에든버러의 지식인들(intelligentsia)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1751년이 끝나기 전에 젊은 애덤 스미스는 권위있는 ‘도덕 철학(윤리학) 교수’(Chair of Moral Philosophy)로 승진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이 교수직을 1764년까지 유지하였다. 그 동안 애덤 스미스는 학부장(Dean of Faculties), 대학도서관 재무관(Quaestor of the University Library), 그리고 학장(Rector) 등도 역임하였다. 특히 애덤 스미스는 글래스고 대학도서관 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도서관 관리 및 회계를 담당했으며, 이는 애덤 스미스가 ‘매우 세심한 사람’이었음을 말해 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애덤 스미스를 먼저 ‘선구자적인 경제학자’로 기억한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실은 ‘철학자’와 ‘사회심리학자’에 더 가깝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 정치학, 윤리학(ethics), 미학(美學, aesthetics)을 단지 ‘인간 마음(human mind)의 다른 부분들’로 인식하였다. 예를 들면, 경제학은 인간 마음의 경제적 측면을 다루고, 정치학은 인간 마음의 정치적 측면을 다룬다고 보았다. 애덤 스미스가 글래스고 대학에서 가르친 과목들은 논리학(logic), 윤리학(ethics), 수사학(rhetoric), 미문학²⁾(美文學, bells-

1) Eamonn Butler, “Logic and Rhetoric at the Heart of Smith’s Ideas”, *Adam Smith Institute blog*, 22 April, 2021.

2) ‘언어를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기술’을 말함.

lettres), 법학³⁾(jurisprudence) 등이었다. 애덤 스미스는 한 마디로 '박식가'(polymath)⁴⁾였다. 애덤 스미스는 심지어 뉴턴(Newton; 1642~1727년)과 과학철학(philosophy of science)에 대한 긴 에세이를 쓰기도 했다.

또한 애덤 스미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주요 작가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애덤 스미스는 주로 옥스퍼드대학 베일리얼 칼리지(Balliol College)의 훌륭한 도서관에서 홀로 공부하였다. 이에 대해 애덤 스미스는 나중에 "옥스퍼드대학의 대학 전체 교수들(public professors)의 대부분은 수년 동안 가르치는 척하기조차도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말했다.

애덤 스미스의 진짜 명성은 1759년에 『도덕감정론』(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출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도덕감정론』은 도덕성(morality)의 사회심리학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덕감정론』은 다윈(C. Darwin)의 『종(種)의 기원』(Origin of Species; 1859년에 발간)이 세상에 나오기 1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도덕성'(human morality)에 대한 놀랍도록 현대적인 '진화론적 관점'(evolutionary view)을 취하고 있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도덕성은 우리의 삶에 유용하고 인간의 종(種)이 번창하도록 돕기 때문에 지속된다'는 대단히 현대적인 진화론적 관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애덤 스미스는 인간은 '사회적 피존물'(social creatures)로서 '다른 사람들의 강화'(強化, reinforcement)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즉, 인

간의 가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반대'에 의해 수정된다고 보았다.

『도덕감정론』은 도덕성(道德性)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현대적인 생각에 확신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원을 일깨워 주었다. 『도덕감정론』의 출간으로 애덤 스미스는 당시에 아직 10대 초반이었던 부클루치 공작(Duke of Buccleuch)의 개인교사가 되어 '유럽 대여행'⁵⁾(Grand Tour; 대륙 순회 여행)를 떠나게 되었다. 이 여행을 통해 애덤 스미스는 당시 유럽의 주요 지식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에서 애덤 스미스는 에든버러에 있었던 친구 데이비드 흄(David Hume)에게 '새 책을 쓰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계획하기 시작했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한 아이디어들은 나중에 『국가들의 부(富)의 본질과 원천에 대한 연구』(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애덤 스미스는 이 책을 "연구"(Inquiry)로 불렀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책을 대개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출간된 『국부론』은 마침내 "역사를 바꾼" 책들 중 하나가 되었다.

3)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정치학'이라고 부름.

4) 견문이 넓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말함.

5) 옛날 영국의 귀족 자제가 교육의 마무리로서 하던 유럽의 대도시를 두루 여행한 것을 말함.

발행처 : (사)한국제도·경제학회

발행인 : 김승욱

편집책임자 : 이성규

편집위원 : 이상학, 김행범, 송정석, 김영신

연락처 : (휴) 010-9800-7211, (이메일) skl62@hanmail.net